



16세기 종교개혁자들과 선교

An Appraisal of the Reformers' Understanding of Missions

개혁자들에게는 선교, 선교행위, 선교사상이 있었는가?

이 상 규(고신대학교 신학과)

key words: 선교, 선교사상, 종교개혁, 개혁자들

한글초록: 이 논문은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선교, 선교사상, 선교활동에 대한 태도와 관심에 대한 연구로서, 개혁자들에게는 선교나 선교사상이 없거나 미미하다고 보는 부정적인 견해와 개혁자들에게는 분명한 선교사상과 선교 행위가 있었다는 긍정적인 견해, 이 양 견해를 검토하였다. 비록 개혁자들에게 복음의 외연에 대한 관심과 선교사상이 표명되었다할지라도 그것은 일차적인 관심일 수 없었고, 당시의 외적 상황 때문에 선교활동에 적극적일 수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는 개혁자들이 선교, 선교사상, 선교활동에 적극적이지 못한 것은 저들이 처한 16세기 로마 카토릭적인 환경 때문이라기보다는 저들의 신학, 특히 교회론에 기인한다는 점을 규명하였다. 예컨대 루터와 루터교회의 영방교회적 성격 자체가 선교의 필요성을 감쇄시키는 요인이었음을 지적하였다.

영문초록: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attitude and theology of mission of the 16th century Reformers whose world of thought has more or less influenced the later missionary development. Generally speaking, historians holds to the assumption that the Protestant Reformers had little interest in overseas missions. They believed that Reformers had rediscovered apostolic gospel but had no apostolic vision. Main figures who hold to this position were William Carey, Gustav Warneck, Stephen Neill, Kenneth Latoutette, and William R. Hogg, who shared this view with Cardinal Robert Bellarmine, a Roman Catholic polemicists. On the other hand, Karl Holl, Werner Elert, J. W. Montgomery, Van den Berg, Sidney Rooy, and Standford Reid, more modern historians, asserted that Reformers demonstrated missionary concern and missionary activities in their writings and reforming movement. According to the above scholars, Luther in fact in several places emphasized the need for proclaiming the gospel to pagans in Europe and elsewhere and as he can see from S. Reid's article on Calvin they were interested in mission. In this articles both opposite views were introduced and weighed on the basis of modern scholarship. As generally conceived, though Reformers did show interest in overseas missions, they were restricted in putting fully into action their theological conviction of the spreading gospel to all nations because of the situations the Reformers found themselves in. In this article, the writer especially pursued to demonstrate theology of the Reformers which influenced mission idea or missionary concern. Reformers were not active in overseas missions, not because of the hostile Roman Catholic world, but because of their theology.

목차

문제점 제기

1. 부정적인 견해들
2. 긍정적인 견해들
3. 개혁자들의 신학과 선교관

맺는 말



문제점 제기

선교에 대한 역사적 논의에서 한 가지 주요한 토론은 종교개혁자들에게 선교사상, 선교활동, 혹은 선교신학이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와 같은 점들에 대한 관심은 19세기 이후 중요한 토론이었다.¹⁾ 일반적으로는 종교개혁자들은 해외선교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가정한다.²⁾ 천주교의 겨우, 이런 입장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인물은 로버트 벨라르민 추기경(Cardinal Robert Bellarmine, 1542-1621)³⁾이었다. 17세기 말의 가장 우수한 카톨릭의 논객이었던 벨라르민은 선교는 참된 교회의 18가지 특징 중의 하나라고 지적하고, 선교에 대해 무관심했던 프로테스탄트는 참된 교회 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단들이 이교도나 유대인들을 기독교 신앙으로 회심시켰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게 했을 뿐이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은 금세기에만도 신대륙에서 수만 명의 이방인들을 회심시켰다. 해마다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로마의 감독에게 충성스러운 카톨릭 교도들에 의해 로마에서 회심하고 영세를 받고 있다. 또 로마와 다른 곳에서 회심하는 사람들 중에는 투르크인들(Turks)도 있다. 루터교도들은 저들을 사도들과 전도자들과 비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 가운데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과, 폴란드와 항거리에 투르크인들을 그 이웃으로 두고 있지만 심지어는 한 손으로 꼽을 수 있는 만큼의 사람들도 개종시키지 못하고 있다.⁴⁾

벨라르민의 비판은 선교에 무관심했던 종교개혁 사상과 개혁자들을 비판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서, 개혁자들은 열교자(裂敎者)이며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었고, 따라서 참된 종교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려는 의도였다. 개혁자들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의미의 선교에 비교적 무관심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현대 개신교 학자들도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다.⁵⁾ 따라서 종교개혁자들의 선교에 대한 무관

1) 이런 문제에 대해 깊이 논구한 학자들로는 Gustav Warneck(1834-1919), Kenneth Scott, Kenneth S. Latourette(1884-1970), Standford Reid 등이었다. J. Verkuyl(최정만역), 「현대선교신학개론」(CLC: 1991), 38참고. 한국에서의 경우 전호진 “종교개혁과 선교,” 「논문집」 제8집, 고려신학대학, 1980, 5-16), 최정만, 「칼빈의 선교사상」(CLC, 1999) 등의 연구가 있다.

2) 일반적으로 다음의 4가지 이유에서 개혁자들은 선교에 대해 적극적인 기여를 하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첫째, 개혁자들은 선교명령은 사도시대에 국한되었고, 그 명령은 이미 성취되었다고 잘못 믿었기 때문인데, 이 점은 사라비아(Saravia)나 케리(W. Carey) 같은 후기인물에 의해 확인되었다. 둘째, 개혁자들은 보다 현실적인 교회개혁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셋째, 개혁자들은 로마 카톨릭에 대항하는 신학적 대립과 정치적 투쟁에 몰두하고 있었으므로 선교적 의무를 수행할 자원을 갖고 있지 못했다. 넷째, 개혁자들은 복음화 되지 못한 비기독교도들과 접촉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J. Verkuyl, 38.

3) 그는 카이저 바로니우스(Caesar Baronius)와 함께 프로테스탄트를 대항한 카톨릭 측의 신학적 이론을 발전시키고 집대성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1576년부터 12년간 로마대학교의 변증학과장이었고, 1593년에는 「기독교신앙에 대한 논쟁에 대하여」(On the Controversies of the Christian Faith)라는 대작을 출판했다. 그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이단이라고 정죄되었던 갈릴레오의 재판에 참여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4) S. Neill, *A History of Christian Missions* (Penguin Books, 1964), 221. “Heretics are never said to have converted either pagans or Jews to the faith, but only to have perverted Christians. But in this one century Catholics have converted many thousands of heathens in the new world. Every year a certain number of Jews are converted and baptized at Rome by Catholics who adhere in loyalty to the Bishop of Rome; and there are also some Turks who are converted by the Catholics both at Rome and elsewhere. The Lutherans compare themselves to the apostles and the evangelists; yet though they have among them a very large number of Jews, and in Poland and Hungary have the Turks as their near neighbours, they have hardly converted even so much as a handful.”

5) Paul Avis, *The Church in the Theology of the Reformers*, 167. 특히 Carl Braten 은 「종교개혁사 문집」(Archiv für Reformations Geschichte, VI. 44)에 기고한 “Reformation and Mission”에서 개신교회에서는 선교 사상이 전적으로 결여되어 있었음을 지적하고, 루터 자신마저도 지상명령은 사도들에게만 국한되는 제한적 명령으로 이해했고, 따라서 루터신학에서의 선교 부재는 자연스러운 것일고 했다. 또 루터의 종말사상은 유럽 중심의 기독교권 밖으로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것을 억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루터교 신학자인 Werner Elert는 그의 *The Structure of Lutheranism* (St.



심은 항상 비판의 표적이 되어왔다. 그렇다면 실제로 종교개혁자들은 선교에 무관심했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있어왔다.

1. 부정적인 견해들

개혁자들에게는 선교사상이나 선교활동이 없거나 미미했다고 보는 부정적인 견해를 대표하는 이들은 다음과 같다.

윌리엄 케리

종교개혁자들의 선교에 대한 무관심을 처음으로 제기한 인물은 윌리엄 케리(William Carey)로 알려져 있다. 그는 1792년에 쓴 「이방인의 개종을 위하여 수단을 사용해야 할 신자의 의무에 관한 연구」(*An Inquiry into the Obligations of Christians to Use Means for the Conversion of the Heathen*)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 없이도 적당한 시기에 이방인을 개종시킨다는 하이퍼 칼빈주의(hyper-Calvinism)를 비판하고, 16세기 개신교회는 천주교의 수도원과 같은 선교기관, 즉 수단을 무시했기 때문에 선교의 노력이 없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그는 일부 종교개혁자들을 포함하여 16세기 이전까지 사도직을 특수직(extraordinary officers)으로 이해한 나머지 선교의 지상명령은 사도직의 종료와 함께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음을 지적하고, 선교명령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명령이라고 주장하였다.

구스타프 바르넵

위대한 선교사학자인 구스타프 바르넵(Gustav Warneck)은 「개신교 선교사 개요」(*Outline of the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s*, 1884)에서 개신교는 영적으로 살아 있으나 선교하지 않고 있고, 카톨릭은 영적으로 죽은 교회이나 선교사역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종교개혁 시대는 우리 앞에 이중적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첫째는 교회는 영적으로 아주 생동감이 있으나, 선교적 사명을 수행하지 않고 있고, 둘째로, 어떤 교회는 선교의 사명을 수행하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다는 사실이다. 의심할 여지없이 종교개혁은 개신교 지역에 위대한 영적 부흥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 생명력은 비 그리스도인들에게 즉각적인 유익을 주지는 못했다. 그들과 접촉하려는 희망이 교회에 선교적 갈망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로 로마의 교회는 15, 16세기, 특히 스페인에서 분명코 영적으로 죽은 교회였다. 그러나 선교사역을 감당했다.

그리고 그는 종교개혁자들의 선교에 대한 무관심을 다음의 8가지로 설명하였다.⁶⁾ 첫째, 개혁자들은 바른 교리와 삶의 회복이라는 교회 내부의 개혁을 우선시했기 때문이다. 둘째, 개혁자들은 로마 카톨릭과의 싸움에 모든 힘을 소진했기 때문에 선교에 대한 관심이나 선교사를 파송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셋째, 로마교황과 터어키인들은 목시론적인 두 가지 형태의 적 그리스도인데, 이런 적그리스도의 회심을 기대하지 않았던 점, 넷째,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보는 종말론적인 이해, 다섯째, 지상명령은 사도들에게 주어졌고, 그들은 그 사명을 이미 감당하여 도처에 교회가 세웠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여섯째, 기독교국의 세례받은 신자들을 참된 복음적 신앙으로 회심시키는 종교개혁이 곧 선교의 본질에 속하는 것이라고 이해한 점, 일곱째, 잘 알려진 식민지 선교는 교황이나, 수도사, 그리고 스페인이 독점학 있었던 점, 여덟째, 독일은 이방인과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으므로 비기독교 이웃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Louis: Concordia, 1962)에서 루터는 선교의 사람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루터에게는 선교 활동(Missionstat)만 없는 것이 아니고 선교사상(Missionsgedanke)조차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최정만, 23-24.

6) John H. Yoder, "Reformation and Missions: A Literature Survey," *Anabaptism and Mission*, edited Wilbert R. Shenk (Herold Press, 1984), 41.



스토펜 닐

스토펜 닐(Stephen Neill) 또한 구스티프 바르벡의 견해에 동조하고 있다. 그는 프로테스탄트들은 생존의 문제로 씨름해야 했고, 개혁자들간의 견해차로 신학논쟁에 정력을 쏟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 그는 개혁자들은 유럽 이외의 세계와의 접촉을 가지지 못했음을 지적하였다. 닐은 “개혁자들이 주변의 세계에 대한 복음적 책임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그 모든 것을 다 합쳐도 선교에 대한 관심은 극히 미미한 것이었다고 지적하였다.

물론 개혁자들이 주변의 비 기독교 세계에 대하여 의식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루터는 유대인과 터키인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 어떤 때는 상당한 친근감을 가지고 이야기했다. 분명히 세계에 복음이 꾸준히 전파되어 나아간다는 사상은 루터에게 낯선 생각은 아니었다. 하지만 (선교에 대하여 말한) 온갖 호의적인 말을 다하고, 개혁자들의 글에서 모든 가능한 증거를 모은다해도 그것은 지극히 미약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⁷⁾

라토렛

라토렛(K. S. Latoutette)은 그의 「기독교 확장사」(*History of the Expansion of Christianity*, Vol. 3, 1974)에서 선교에 대한 관심에 있어서 개혁자들과 천주교를 비교하면서, “로마 가톨릭 선교활동의 절정기였던 16세기에 프로테스탄트들은 기독교 신앙을 유럽 밖으로 전하려는 어떤 시도도 없었다”고 했다.⁸⁾ 그는 앞에서 말한 바르벡의 8가지 이유에 3가지를 더하여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설명했다. 첫째, 개신교 국가의 위정자들은 카톨릭 국가의 위정자만큼의 선교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점, 둘째, 개신교 국가에 있어서 식민지적 관심은 선교를 자원의 낭비 혹은 수입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이들의 수중에 있었다는 점, 셋째, 개신교에는 수도사들이 없었으므로 신학적으로 특별한 종교적 소명에 대한 이상이 없었던 것이 그 이유라고 지적했다.

윌리엄 헉

감리교 신학자인 헉(William R. Hogg)은 앤더슨(G. W. Anderson) 이 편집한 「기독교 선교신학」(*The Theology of the Christian Mission*, London, 1961)에 기고한 “개신교의 선교관심”(The Rise of Protestant Missionary Concern)에서 교회에서의 선교에 대한 종교개혁자들의 인식의 결여를 비판하였다.⁹⁾ 특히 칼빈과 관련하여 윌리엄 헉은 선교적 의미를 선교적 의무와 연결시키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칼빈의 주석이나 「기독교강요」에도 적극적인 선교신학은 없다. 이교도들의 개종을 바라고 비기독교 세계에 살고 있는 신자들의 삶에 대하여 관심을 보인 흔적은 여기 저기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아 종교개혁자들에게는 교회의 선교적 차원에서의 선교이해가 없었다.¹⁰⁾

고 지적했다.

허버트 케인

개혁자들이 선교에 무관심했던 점에 대한 허버트 케인(Hebert Kane)의 변호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도 「세계선교 역사」(*A Concise History of the Christian World Mission*)에서 프로테스탄트가 선교활

7) Stephen Neill, 222.

8) K. S. Latoutette, *History of the Expansion of Christianity*, Vol. 3 (1974), 42. "In the 16th century, the heyday of Roman Catholic missionary activity, Protestants made almost no attempt to propagate the faith outside Europe."

9) W. R. Hogg, "The Rise of Protestant Missionary Concern," in G. W. Anderson ed., *The Theology of the Christian Mission* (London, 1961), 97ff.

10) G. Anderson(박근원역), 「선교신학 서설」(대한 기독교서회, 1975), 121, 최정만, 26.



동을 하지 못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은 4가지 이유로 설명했다. 첫째, 가장 중요한 요소는 종교개혁자들의 신학 때문이었다. 그들은 지상명령이 오직 12사도에게만 주어졌다고 생각하여 사도들이 그 당시에 알려진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함으로서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완수했다고 가르쳤다. 또 사도직은 직접적인 소명을 받은 것으로 특수한 기능과 기적을 행하는 힘 등은 소멸되었기 때문에 후세대의 교회는 선교사들을 세상 끝까지 파견할 권위도 책임도 없다고 가르쳤다. 둘째, 16세기와 17세기의 프로테스탄트교회들은 수적으로 로마교에 크게 뒤졌으며, 로마교와의 대결 때문에 선교에 대한 여력이 없었다. 셋째, 아시아나 아프리카 혹은 신대륙 등 선교지로부터 프로테스탄트가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넷째, 프로테스탄트교회 안에는 카톨릭 신앙을 전파하는데 현저한 기여를 했던 종교단(수도원 등과 같은 교회조직)이 없었다는 점을 들었다.¹¹⁾

2. 긍정적인 견해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개혁자들도 선교에 관심을 가졌고, 그들에게도 선교활동이 없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다.¹²⁾ 이런 입장을 대표적인 이들로는 칼 홀(Karl Holl), 베르너 엘러트(Werner Elert), 몽고메리(J. W. Montgomery), 판덴 베르크(Van den Berg), 시드니 루이(Sidney Rooy), 그리고 스탠포드 리드(Stanford Reid) 등을 들 수 있다. 개혁자들도 선교에 관심이 있었다고 주장한 학자들은 “루터가 유럽과 그 외의 지역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고 말한 점 등 복음의 외연(外延)에 대한 언급에 주목하였다.

판 덴 베르크는 그의 박사학위 청구논문, 「예수의 사랑에 못이겨」(*Constrained by Jesus' Love*)에서, 루이는 그의 「청교도 전통에서의 선교신학」(*The Theology of Missions in the Puritan Tradition*)에서 개혁자들과 개혁자들의 후예들의 선교에 대한 관심과 선교활동이 지대했음을 기술했다. 심지어 독일 하이델베르크의 선교학교수인 겐시헨(D. H. W. Gensichen)은 “개혁자들을 언급하지 않고는 선교역사를 논할 수 없고, 또 개혁자들의 선교신학을 언급하지 않고는 종교개혁의 역사를 기술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트리니티 신학교 교수인 몽고메리는 루터의 사상은 18, 19세기에 와서 해석자들에 의해 큰 수난을 당했으며 그의 사상은 오해되었다고 루터를 변호하였다. 그는 루터교 신학자인 베르너 엘러트(Werner Elert)의 말을 인용하여 “사도들이 온 세상에 이미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루터가 현재 교회는 전도의 사명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주장하는 현대 신학자들의 사상은 루터와 멜랑히톤에게서 찾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바르텍이 지적한 바와 같이 루터는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의미의 선교의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선교회를 조직하여 선교사를 보내거나, 선교학의 전문가로 자처하기보다는 오히려 교회개혁에 몰두했다”고 전제하고 루터의 개혁운동 자체가 위대한 선교행위(missionstat)이며, 루터의 사상은 선교사상(missiongedanke)이라고 변호하였다. 이처럼 루터를 변호하는 이들은 루터가 주장한 평신도의 성경연구, 신자의 만인제사장의 원리는 선교를 가능케 했다고 주장한다. 개혁자들도 선교에 관심이 있었다고 주장한 학자들은 루터가 “유럽과 그 외의 지역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칼빈의 선교사상에 대해서는 칼 호른(David Calhoun), 찰스 체니(Charles Chaney), 슈라터(W. Schlatter), 쾰웹머(Samuel Zwemmer) 등의 긍정적인 주장이 있어왔으나, 특히 필립 휴즈(Philip E. Hughes)는 칼빈에게는 선교사상과 선교실천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칼빈, 선교의 실행자”(John Calvin: Director of Missions)라는 논문에서 “칼빈의 제네바는 피난처나 학교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그것은 신학적인 상아탑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책임을 인식한 곳이었다.”고 말했다.¹³⁾ 말하자면 제네바는 ‘선교의 학교’(a school of missions)였고,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훈

11) Hebert Kane, 「세계선교 역사」, 97이하.

12) 이 점에 대해서는 전호진, 8-10을 참고할 것.

13) P. E. Hughes, "John Calvin: Director of Missions," in J. H. Bratt ed., *The Heritage of John Calvin* (1973), 44-45.



런 받은 목회자들이 프랑스로 파송된 경우를 그 근거로 제시했다.¹⁴⁾ 그는 칼빈에 의한 선교 노력은 제네바의 개혁신앙을 가진 이들이 프랑스만이 아니라 브라질에 파송된 경우에서도 이 점이 입증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칼빈과 제네바 교회가 선교 사명을 감당하려는 그들의 선교적 과제(their missionary task)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¹⁵⁾

선교에 대한 칼빈의 태도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논문을 발표한 이는 칼빈주의적인 교회사학자 스텐포드 리드(Stanford Reid)였다. 그는 그의 “칼빈의 제네바”(Calvin’s Geneva)에서 칼빈은 선교에 관심이 많았으며 브라질에 선교사를 파송한 사실을 말하기도 했다.¹⁶⁾ 특히 그는 칼빈이 제네바에서 프랑스에 사역자를 파송한 것은 곧 선교였다고 주장하고, 제네바는 선교의 중심지라고 주장한다.¹⁷⁾ 제네바에서 훈련받은 최초의 목사는 필리베르 아믈랭(Philibert Hamelin)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는 1553년 프랑스 아르베르반도의 생또뉴(Saintogne)에 부임하였다. 1555년부터 1562년까지 제네바는 적어도 90여명의 선교사(목회자)들을 파송하였는데 이들은 65개 처 교회에서 사역하였다.¹⁸⁾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네바에서 프랑스로 파송된 목회자(선교사, 1555-1562)¹⁹⁾

파송된 지역	파송된 수	사역한 교회수
노르만디(Normandy)	8 명	4 교회
샹파뉴(Champagne)	1	1
브리타니(Brittany)	5	4
투렐(Touraine)	3	1
푸아투(Poitou)	8	3
오니,쌩똥그(Aunis & Saintonge)	5	5
일 드 프랑스(Ile de France)	7	2
오를레앙스(Orleanais)	8	5
베리(Berry)	6	3
오베르그뉴(Auvergne)	3	3
비르간디(동브스){Burgundy(Dombes,	1	1
기옌느,가스꼬니(Guyenne,		
나바르,베아혼(Navarre,Bearn)	16	12
랑게도(Languedoc)	9	9
리요네(Lyonnais)	5	1
도피네(Dauphine)	7	6
프로방스(Provence)	6	4 혹은 5

제네바로부터 파송된 이들은 프랑스 개혁교회 설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교회는 탄압 가운데 있었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나, 개혁신앙은 확산되었다. 1561년 콜리니(Coligny)계독은 프랑스내에

14) P. Hughes, *The Register of the Company of Pastors of Geneva in the Thme of Calvin* (Eerdmans, 1966), 25.

15) *Ibid.*, 28.

16) Stanford Reid, "Calvins Geneva", *Reformed Theological Review*, XLII, No. 3.

17) *Ibid.*

18) 이상규, 「교회개혁사」(성광문화사, 2003), 283.

19) J. G. Gray, *The French Huguenots* (Baker, 1981), 67.



적어도 2,150개 이상의 개신교 교회가 있다고 주장할 정도였다.²⁰⁾

비록 개혁자들이 선교에 관심이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드린다고 해도 개혁자들의 선교이상은 정직하게 평가하면 만족스럽지는 못했고 이들의 주장은 여전히 빈약하다. 그 이유는 보통 4가지로 설명되고 있는데. 첫째는 개혁자들은 수적으로 소수였고, 개혁자들 간의 신학적 논쟁 때문에 다른 일에 관심을 둘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며, 둘째는 1648년 30년 전쟁이 끝날 때까지 프로테스탄트는 생존을 위한 투쟁에 몰두했기 때문이다. 셋째는 외국의 이교도나 이교국 사람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기 때문이다. 넷째 천주교 국의 나라들이 해상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3. 개혁자들의 신학과 선교관

개혁자들에게도 선교사상이 있었다는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개혁자들이 오늘과 같은 선교사 파송에는 무관심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들은 왜 해외 선교나 선교사 파송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는가? 개혁자들은 콜럼부스(Christopher Columbus, 1451-1506)나 바스코 다 가마(Vasco da Gama, 1469?-1524) 이후에 살았다. 따라서 비 구라과 세계와 이민족과 이교의 현존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동시에 로마 카톨릭의 선교사 파송 기구와 그들의 노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경건주의의 대두 때까지 선교사 파송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점에 대해 일반적으로 개혁자들은 그런 상황에 우선 순위를 둘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왔다. 다시 말하면 16세기 종교개혁에는 그 시대의 과제(agenda)가 있었는데, 그것이 교회개혁이었고, 교회 쇠신이 가장 우선하는 과제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왔다. 또 외적인 상황으로 볼 때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등 천주교 국가들이 해상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외로의 진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고, 따라서 이방세계와의 접촉의 기회가 없었다고 설명한다. 이런 해명은 타당성과 호소력을 지니지만 보다 근원적인 문제에서 개혁자들의 선교사상에서 헤아리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구스타프 바르넥에 의하면 루터 등 개혁자들은 로마 카톨릭의 사도적 계승 교리에 대한 지나친 반발로 사도들에게 위임된 대위임명령 마저도 사도들에게만 국한된 명령으로 이해했다고 한다. 로마 카톨릭은 교황권은 사도직의 계승(successio apostolica)이라고 보았는데, 개혁자들이 사도직의 단회성과 불연속성을 강조하다보니 사도들에게 위임된 지상명령도 사도들에게 제한적으로 위임된 것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종교개혁자들에게는 선교사상이 결여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후대 학자들 간에 논쟁이 없지 않지만 개혁자들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의미의 선교나 선교사상, 선교실천이 없거나 부족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에게는 그 시대의 과제가 있었고, 그것은 교회의 개혁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혁자들에게 오늘 우리 시대의 모든 문제에 대한 이해와 식견을 요청하는, 말하자면 백과사전적인 요구는 지나친 욕심이라는 점을 지적해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자들에게 있어서 선교가 어떻게 이해되었던 가 하는 점을 외적 상황, 곧 환경적 요인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신학적 측면에서 헤아리는 것이 옳을 것이다.

루터

사실 루터는 여러 곳에서 유럽과 다른 지역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한 바 있다.²¹⁾ 그러나 그것이 선교사상, 혹은 선교실천으로 실행되지 못한 것은 그의 독일을 중심으로

20) 이상규, 284.

21) 그 대표적인 경우가 마가복음 16:15절에 대한 주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That the Apostles entered strange houses and preached was because they had a command and were for this purpose appointed, called and sent, namely that they should preach everywhere, as Christ had said, 'go into all the world and preach the gospel to every creature'. After that, however, no one again received such a general apostolic command, but every bishop or pastor has his own particular parish." M. Luther, D. Martin Luthers Werke, (Weimar, 1897) vol. 31, 210-211. 루터는 사도적 명령은 사도들에게만 국한된 명령이라는 의식이 있었으며, 이 명령은 후에 계속되지 않았지만 마치 호수에 돌이 던져지면 그 파장이 계속 이어 가듯이 복음이 전파되어 간다고 생각했다. R. E. Davies, "The Great Commission from Calvin to Carey," *Evangel* 14:2 (Summer, 1996), 44.



로 전개된 그의 개혁운동이 영방교회(Landes Kirchen)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그의 개혁운동을 통해 이루어진 국가로부터 독립된 교회는 개인의 자발적인 개종을 강조하고,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루터교회는 특히 농민전쟁을 경험한 1526년을 경과하면서 영방교회적(territorial church)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특히 1529년 제일차 스파이에르 제국의회를 통해 선언되었던 “그 지역의 종교는 그 지역 통치자의 종교로”(cujus regio, ejus religio)라는 통치자에 의한 지역별 종교선택권은 루터교적 전통이 되었는데, 1555년 아우구스부르크 강화회의(The Peace of Augsburg)를 통해 이 제도가 굳어졌다.

그래서 해 지역의 사람들은 그 지역 통치자의 종교를 따른다는 방식의 교회 구조는 선교에 대한 관심을 구체화시키지 못하게 했던 보다 근원적인 요인이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영토 안에서”(in his dominions)라는 방식은 자신의 영토밖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었다. 주어진 지리상의 태두리 안에 완전히 폐쇄된 교회가 진정한 의미의 선교적 교회가 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²²⁾ 이것이 루터교회의 한계였다. 사실 이런 루터파의 국가교회적 제도는 루터의 국가관에 기초하고 있는데, 그의 국가관은 이미 1515년에서 1546년 사이의 루터의 「로마서 강의」에 암시된 두 왕국설에 기초하고 있다.

루터교신학자 칼 브라텐(Carl Brateen)은 개신교의 선교사상의 결여를 비판하면서, 특히 루터 자신도 선교명령을 사도들에게만 국한된 명령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선교부제를 초래하였고, 그의 종말론 사상은 기독교국가 밖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을 억제시켰다고 비판했다.²³⁾ 또 루터교 신학자 엘러트(Werner Elert)는 그의 「루터교의 구조」(*The Structure of Lutheranism*)에서 루터에는 선교활동만이 아니라 선교사상조차도 없다²⁴⁾고 평했는데, 이런 비판과는 달리 루터가 선교에 무관심할 수밖에 없었던 근원적인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루터와 루터파의 교회관, 곧 영방교회적 성격 때문이었다.

부서

부서(Matthäus Bucer)의 글에서 선교와 관계된 대표적인 언급은 에스겔 34장 16절에 대한 주석이다. 그는 이 글에서 “나는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찾고, 길 잃은 이들을 돌아오도록 할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고, 복음을 이방 세계에까지 전파해야 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피택된 자를 알지라도 우리는 모든 피조물을 영생으로 인도할 책임을 부여받고 있다”고 했다. 부서는 어거스틴과 마찬가지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보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지역적 개념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는 영역이라고 이해했다. 비록 그가 이방 세계에 대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교회의 책무로 강조했으나 그도 그 시대의 아들이었다. 개신교신학의 확립은 종교개혁의 우선적인 과제였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해상권을 장악하고 있어 해외진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무엇보다도 개신교는 카토릭의 제도를 부인하면서 선교활동에 매우 효과적인 제도였던 수도원제도까지 거부했으므로 구체적인 선교실천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다. 이런 그 시대적 배경 외에도 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권적 통치의 개념'으로 보아 복음전파를 통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장소성의 문제로 강조하지 못했다. 이런 점들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선교실천이 미약했던 신학적 이유였다고 볼 수 있다.

칼빈

칼빈과 선교에 관한 문서는 방대하다. 몇 가지 상이한 견해가 있지만, 칼빈은 선교에 대한 관심이나 실천이 미약했다는 부정적 견해와 선교에 대해서도 상당한 이해와 관심과 실천이 있었고, 그의 선교사상이 후대의 선교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긍정적인 견해로 대별될 수 있다.²⁵⁾ 선교에 대한 칼빈의 견해나 사상과 관련하여 지나치게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그에게 선교사상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교회 개혁 운동 자체가 선교라고 말하거나, 스트라스부르크에서 보낸 3년간의

22) Stephen Niell, 221.

23) K. Bratten, *the flaming Center* (fortress Press, 1977), 15. 전호진, 7.

24) Werner Elert, 385.

25) 이 점에 대한 논의는 최정만, 99-120을 참고할 것.



기간이 선교사역이었다고 말하는 등 선교라는 시각(始覺)에서 그의 생애를 보는 것은 편향된 선교 시각(視覺)이다. 기독교강요, 성경주석을 비롯한 칼빈이 남긴 방대한 문서 속에서 선교와 관련된 언급을 찾는 일은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는 선교사상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도 정당하지 못하다. 필립 휴즈(Philip E. Hughes)나 칼 스티븐슨(Carl D. Stevens)이 주장하는 바처럼 칼빈의 제네바 교회에서는 4명의 성직자와 프랑스 위그노 일단을 리오 데 자네이로 보내 박해 받는 개신교도들을 위해 영지를 개척한 일이 있는데, 이것은 선교사를 파송한 것이며,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수학한 1백여명이 넘는 이들을 프랑스에 보내 개혁교회운동을 전개한 것도 선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²⁶⁾ 또 그는 성경주석과 설교에서 복음증거와 전파를 수없이 언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존 칼빈: 선교의 영웅인가, 선교의 실패자인가”를 쓴 데이비드 칼호은(David Calhoun)의 평가는 공정하다. “칼빈은 해외선교를 강력하게 추진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의 신학은 선교적이였다. 즉 그의 신학에는 신자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통치아래 포함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끝까지 전파하고자 하는 내적 역동성을 포함한다.”²⁷⁾ 칼빈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선교운동의 기수였다든가 그의 제네바가 선교의 센터였다는 주장²⁸⁾은 일면적 진실에도 불구하고 타당한 주장으로 보기는 미흡하다. 사실 그곳은 일차적으로 개혁의 요람이었고, 유럽의 개혁신학의 산실이었다.

반대로 칼빈이 선교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주장도 옳지 않다. 그는 클로스터(Fred H. Klooster)교수가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복음 전파나 해외선교에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²⁹⁾ 호주의 학자인 이언 머리(Ian Murry)는 그의 「청교도의 소망」(*The Puritan Hope*)에서 칼빈의 디모테전후서와 디도서 설교를 인용하면서 칼빈은 복음전파와 선교의 이상을 선명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했다.³⁰⁾ 칼빈 자신은 구원론적 기반에서 복음이 세계에 전파되고, 땅끝까지 구원이 이르러야 한다는 사상이 분명했다.

칼빈 자신은 선교의 이상을 강조하고 이를 실행하려고 했다할지라도 그의 하나님의 주권사상, 교회론, 혹은 예정론이 16세기와 그 이후 칼빈주의 세계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다시 말하면 선교에 대한 칼빈의 견해를 논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은 칼빈의 신학이 선교사상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비단 칼빈주의자들의 경우만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론에 대한 오해가 선교운동을 저해하는 요인이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한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선입관을 가지고 인간의 책임을 간과하는 예정론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이 이교도들을 회심시키고자 하신다면 사람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시고도 구원하실 것이다. 반대로 하나님이 이교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지 않으신다면 사람의 관여는 어리석고도 무의미한 수고가 되고 말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것이 18세기말 윌리엄 케리 당시의 칼빈주의적인 침례교 지도자들의 보편적 인식이었다. 이들에게 있어서 칼빈의 “우리가 배운대로 그리스도의 나라는 인간의 노력으로 발전되거나 유지되는 것이 아니며, 다만 하나님 혼자만의 일이다”³¹⁾는 말은 오해의 소재였다.

이와 동시에 16세기에 편만했던 종말론, 즉 곧 종말이 임한다는 소위 묵시주의(apocalypticism) 또한 선교의 구체적인 실천을 방해했던 그 시대의 사조였다고 할 수 있다.

존 나스

나스에게 있어서 선교사상을 헤아릴 근거는 다른 개혁자들에 비해 매우 빈약하다. 그에게 있어서도 교회 개혁은 최우선적인 과제였고, 복음 진리의 올바른 확립과 증거, 그 자체가 사실 그 시대의 선교였다. 나스가 남긴 문서는 루터나 칼빈 등에 비하면 소량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이

26) Carl D. Stevens, *Calvin's Corporate Idea of Mission* (Phila.: WTS. PhD Thesis, 1992), 203, 227ff.

27) David Calhoun, "John Calvin: Missionary Hero or Missionary Failure," *Presbyterian Bulletin*, 16-33. 최정만, 104-5에서 중인.

28) Stanford Reid, "Calvins Geneva", *Reformed Theological Review*, XLII, No. 3.

29) Fred H. Klooster, "Missions...the Heidelberg Catechism and Calvin," *Calvin Theological Journal*, 7(1972), 183.

30) Ian Murry, *The Puritan Hope*, 84.

31) 허버트 케인(박광철역), 「기독교세계선교사」 (생명의 말씀사, 1981), 106.



방세계에 대한 복음 증거의 책임을 강조한 문서가 없지는 않는데, 그 대표적인 문서로 그를 포함한 6명의 존(six Johns)이 작성한 1560년의 ‘스코틀랜드신앙고백서’(Scots Confession)를 든다. 4일 만에 작성된 25개조로 구성된 이 신앙고백서 표지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은 모든 족속에게 증거 되기 위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야 할 것이고, 그리고는 종말이 올 것이다”라고 쓰고 있다. 스코틀랜드신앙고백서는 1647년의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와는 달리 첫 조항에서 ‘하나님’을 다루고 있어 하나님의 주권사상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칼빈주의적 성격이 강한 신앙고백서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도 그러하듯이 선교문제를 별개 항으로 취급하지는 않고 있다. 복음 증거와 전파에 대한 책임은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선교행위는 미약했다. 결국 나스 또한 그 시대의 사조를 극복하지 못했던 것은 그 시대적 한계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맺는 말

이상에서 우리는 종교개혁과 선교의 문제를 개혁자들의 선교, 선교사상, 선교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그리고 긍정적인 견해를 검토하였다. 개혁자들에게 복음의 외연 혹은 타문화권에 대한 복음적 책임이라는 점에서 선교사상이 전혀 없지는 않으나,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선교사상이나 선교 활동을 기대하거나, 이의 부재를 비판하는 것은 16세기적 환경, 곧 개혁자들의 ‘그 시대적 상황과 한계’를 고려하지 않는 비역사적 평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글에서는 비록 개혁자들이 선교에 관심이 있었고, 선교사상을 보여주고 있다 하더라도 그 실천이 미약했던 보다 근원적인 이유는 그들의 신학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저들의 신학, 특히 저들의 교회관은 ‘그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고, ‘그 시대적 한계’를 고착화 하는 요인이었다.

흔히 말하는 16세기적인 환경이란 보통 4가지로 설명되고 있는데, 첫째, 개혁자들은 소수였고 개혁자들 간의 신학적 논쟁 때문에 다른 여력이 없었다는 점, 둘째, 1648년 30년 전쟁이 끝날 때까지 프로테스탄트는 생존을 위한 투쟁에 몰두했다는 점, 셋째, 외국의 이교도나 이교국 사람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다는 점, 넷째, 천주교 국의 나라들이 해상권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점 등인데 이런 사회, 정치적 환경이 이방인의 개종에 대한 개혁자들의 관심을 미미하게 만들었던 외적 요인이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요인은 개혁자들의 신학, 특히 교회관과 종말론이었음을 지적했다.

참고문헌

벌카일 (최정만역), 「현대선교신학개론」(CLC: 1991).

엔더슨, G.(박근원역), 「선교신학 서설」(대한 기독교서회, 1975).

이상규, 「교회개혁사」(성광문화사, 2003).

전호진, “종교개혁과 선교,” 「논문집」 제8집 (고려신학대학, 1980), 5-16).

최정만, 「칼빈의 선교사상」(CLC, 1999).

케인, H.(박광철역), 「기독교세계선교사」 (생명의 말씀사, 1981).

Anderson, G. W., ed., *The Theology of the Christian Mission* (London, 1961).

Avis, P., *The Church in the Theology of the Reformers*,

Davies, R. E., "The Great Commission from Calvin to Carey," *Evangel* 14:2 (Summer, 1996).

Elert, W., *The Structure of Lutheranism* (St. Louis: Concordia, 1962).

Gray, J. G., *The French Huguenots* (Baker, 1981).

Hughes, P., *The Register of the Company of Pastors of Geneva in the Time of*



Calvin (Eerdmans, 1966).

Latoutette, K. S., *History of the Expansion of Christianity*, Vol. 3 (1974).

Luther, M., *Martin Luthers Werke*, 31(Weimar, 1897).

Murry, I., *The Puritan Hope* (Banner of Truth Trust, 1997).

Neill, S., *A History of Christian Missions* (Penguin Books, 1964).

Reid, S., "Calvins Geneva", *Reformed Theological Review*, XLII, No. 3.

Stevens, C. D., *Calvin's Corporate Idea of Mission* (PhD Thesis, WTS, 1992).

Yoder, J. H., "Reformation and Missions: A Literature Survey," *Anabaptism and Mission*, edited Wilbert R. Shenk (Herold Press, 1984).



개혁주의 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